

韓國의 社會構造와 學生運動

高 永 復
(서울大 社會學科)

학생 집단은 구조적 모순에서 억압받고 있는 요구를 대변하려고 하였다. 첫째로 소외된 지식인 집단의 지위 향상을 피하고, 둘째로 一方通行의 정치 제도의 철폐를 견제하며, 셋째로 정치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회적 요구를 발산하고, 넷째로 階層的으로 불리한 下層階級的의 利害關係를 대변하는 운동을 전개하려 한 것이다.

1. 學生運動의 흐름

한국의 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학생운동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없을 것이다. 學生運動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侵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출하였고 8·15 해방 후 남북 분단이 되고 있는 오늘까지 그 威力을 발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운동의 象徵的인 事件은 워니워니 해도 일제 침략기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과 해방 후 自由黨의 獨裁에 항거한 4·19 學生革命을 들 수 있다. 이 두 거사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기성의 支配體制에 대한 抗拒運動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民族意志를 수렴하고 結集시킨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바람직한 價値志向의 規範性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생운동이 이 두 事件으로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連續性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傳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段階를 구분지어 보면 다음의 7段階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제1기는 개화기 이후 광주학생운동까지의 일제 침략하에서의 민족주의적 抵抗運動의 시기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學校敎育은 1895년에 시작하는데 學生集團은 민족의 엘리트로서의 知覺과 使命感으로 충만하여 일제 침략에 대한 민족적 抗拒運動의 中樞勢力으로서 직접적인 反日鬭爭을 先導했다. 제2기는 광주학생운동 이후에서 8·15 해방까지의 理念的인 사상 운동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일제의 統治權力의 彈壓과 抑壓이 高度에 달한 시기로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로 共產主義와 社會主義의 이념이 학생운동 속에 도입되었으며 써클 학습과 地下運動을 통해 민족 국가 형성의 이념이 추구되었다. 제3기는 8·15 해방 후 6·25 전쟁까지의 사상적

대립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민족이 분단되어 정치적·사상적 紛爭이 격심했던 시기로서 민족의 통일을 위한 目標的 價値의 충돌이 표면화된다. 6·25 전쟁은 결과적으로 좌우의 兩陣營을 남북으로 분할하여 민족적 에너지의 兩分現象을 가져 왔다. 제 4기는 4·19 學生革命을 전후한 學生勢力의 정치적 壓力集團化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6·25 전쟁으로 좌우 세력이 완전히 분리된 후 전쟁 시기에 팽창한 학생 세력의 참신한 이상주의가 침체된 社會를 공격하고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치적 不自由와 不正腐敗, 貧困, 經濟的 不平等을 제거하기 위한 社會改革的 요구가 학생운동에 침투한다.

제 5기는 維新體制와 5共和國에서의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반정부 운동의 시기이다. 여기서 학생 세력은 정치 권력에 대립하는 항거 집단이 된다. 기성의 지배 윤리에 반대하는 反抗論理를 구축하고 組織性과 連帶性을 보이며 반체제 세력으로서의 求心力을 형성하여 군부에 대립하는 運動志向의 집단이 된다.

제 6기는 6國화국 형성의 전후에 나타난 사회 체제의 개혁을 위한 前衛勢力化의 시기이다. 사회 구성의 기본 문제에 도전하여 革新的 急進主義와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이상주의를 사회적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정치 세력으로 활동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은 다양한 변화를 겪었지만 한결같이 공통된 것은 사회 구조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批判勢力으로 활동하였다는 점, 그리고 학생운동의 요구가 사회 구조의 변화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 견제력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학생운동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첫째로 한국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힘이 현실 사회 속에 결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학생 집단이 의식적으로 가장 개화되고 한국 사회의 운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문제 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집단적 연대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학생 문화의 批判的 傳統을 형성했다.

일제하에서 형성된 학생 문화의 전통이 8·15 해방 후에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청

산되지 않은 사회 구조의 連續性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즉 일제 시대의 사회 구조의 유산이 해방 후에도 현실적 구조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2. 社會構造의 誘因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결함과 모순은 처음부터 우리의 국가 형성에서 몇 가지 制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다. 즉 첫째는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한 대립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고, 둘째는 先進資本主義의 틀바구니에서 근대화를 성취하려는 몸부림을 지속해야만 했고, 셋째는 6·25 동안 이후 상당 기간 外援에 의존하여 발전을 志向해야 하는 기본적 전제를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그리고 이 제약은 아직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구조는 바람직한 理想主義를 추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社會構造의 統合이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해방과 더불어 전근대적 구조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自生的이고 基礎로부터의 구조 변화이었다기보다는 외래적 요인의 자극과 충격으로 다분히 他律的이고 위로부터의 구조 변화가 정치적으로 도모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해방 직후의 우리 사회는 사회구조적 통합의 지향에 대한 정치적 대립과 鬭爭으로 점철되었는데, 이것은 곧 정치적 지도 체계의 확립을 위한 외세의 작용과 이해 관계의 상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어서 勃發한 6·25 동안에서의 자유 진영의 지원은 우리 사회 구조의 통합의 틀을 규정 지워 버렸고 정치를 통한 근대화이로의 사회 구조의 변화와 편성 속에서 自由民主主義의 理想을 성취하려 하였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통합을 위한 정치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대립되는 이념 체계를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는 現實指向的 改良主義이고, 다른 하나는 理想指向的 革新主義이다. 前者는 사회적 현실을 일단 긍정하여 현실 속에서 제

기되는 모순이나 결함을 시정하지는 漸進的 統
합을 말하고, 後者는 사회를 根本的으로 인간의
욕구대로 철저히 改革變造하지는 急進的 統
합을 뜻한다.

漸進主義는 현실 긍정적이므로 상층에 의해 지
지되고, 急進主義는 현실 부정적이므로 하층에
의해 옹호된다. 이러한 회구가 정치 세력화하면
전자를 보수 정당, 후자를 혁신 정당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漸進主義的 勢力만이 정
치적으로 집결되고 조직화에 성공하였으며, 後
者의 急進主義는 狀況的인 與件, 특히 6·25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잠재적 가
능성으로만 산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두 세
력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
았다.

4·19 學生革命은 미조직화된 급진주의 세력의
사회적 출현을 가져 왔다. 미조직의 세력은 가
끔 시위나 가두 데모 등의 준중 봉기의 형태로
끈적진 항거력을 보였지만 5·16으로 세세는 결
정적으로 漸進主義 統합을 制度化하도록 이끌어
나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구조는 정치
적 강제력을 통하여 안정은 가져 왔지만 몇 가
지의 과제를 내부에 그대로 안고 있었다.

첫째로 한국 사회는 구조화 과정에서 기본적
으로 세 가지 데입되는 주도력이 존재하고 있었
다. 즉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집단이었다. 이
들은 제각기 다른 제도적 거점을 갖고 상이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用具의 생산에 종
사하는 경제인, 규범의 통제를 관할하는 정치
인, 이념의 창조와 개발을 전담하는 지식인들
사이에는 그들의 기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불
협화음이 있었다. 이것이 정치적 통제력의 강화
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로 한국 사회 구조의 통합 과정에서 통
합의 原理와 現實이 일치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자주적으로 독립을 쟁취했다라기보다는 수동적
으로 주어진 여건을 수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獨立鬭爭의 열이 그대로 연장되어 제
도로 結實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상황적
요청에 따라서 정치 권력이 앞섰고 사회 구조는
정치 기구의 주도 아래 정비되는 작업이 서둘러

졌다.

그러면서도 民主化를 志向하였으나 정치 권력
에 대한 반발을 생산적으로 흡수하는 과업에 정
공하지 못하였다.

세째로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현실과의 불일
치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세
력은 사회 세력의 대표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
다. 그것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의 불만층의 욕
구를 정치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결여되었기 때
문이다. 정당의 싸움은 있어도 그것은 같은 정
치 성향의 선량들끼리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고, 특정 사회 계층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
는 대표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정치의 세
계는 다만 통치를 위한 상층부의 세계라고 간주
되어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 대중의 불신감이 강
했다. 그러므로 정치와 사회는 거리를 넓히고 있
고 정치화되지 못한 사회적 욕구는 불만을 자체
속으로 축적·심화시키고 있었다.

네째로 한국 사회의 계층적 상승의 통로에 문
제가 있었다. 자유를 표방하는 사회에서는 계층
상승의 길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도 제도의 명목적 가치로서는 자유주의적 개방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의 현실에서
는 階層 上昇路가 차단되어 있는 곳이 많았다.
하층이 일확천금할 수 있을 만한 개척지는 없고
제도적인 틀이 그러한 기회를 만인에게 공개하
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기대
되는 유일한 계층 상승의 정상적 통로로서의 일
을 맡고 있지만, 교육이 사람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상층 지도력
의 배타성과 한계성 때문에 더욱 가중되었다. 이
러한 사정들은 우리나라 사회 구조의 정상적 통
합을 위해 상당한 혼란을 가져 왔고 통합 과정에
오랜 진통을 겪게 한 것이다. 학생 집단은 이러
한 구조적 모순에서 억압받고 있는 요구를 대변
하려고 하였다.

첫째로 소외된 지식인 집단의 지위 향상을 꾀
하고, 둘째로 一方通行的인 정치 제도의 횡포를
견제하고, 세째로 정치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회적 요구를 발산하며, 네째로 階層的으로 불
리한 下層階級의 利害關係를 대변하는 운동을 전
개하려 한 것이다.

3. 世代間의 意識差

우리 사회의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의 의식 사이에는 심한 격차가 있다. 기성 세대의 의식에는 전근대적 요소가 강하고 젊은 세대에는 근대적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기성 세대는 현실지향적인 데 대하여 젊은 세대는 이상지향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는 의식의 複合性이 보이는 데 반해 젊은 세대는 純眞性이 보인다. 이러한 의식의 격차는 사회 구조의 激變性과 사회화 과정의 背反差에서 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野蕪的이고 革新的이다. 학생운동이 끈질긴 것은 젊은 세대의 강한 정의감과 정열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세대간의 의식차는 사회 구조의 所産인 것이다. 한국의 사회 구조의 결함은 그대로 기성 세대의 의식 속에 반영되어 있고 이에 대립하는 젊은 세대의 반발적 의식이 대조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구조가 야기한 한국인의 성격적 병리를 다음에 살펴 보자.

첫째로 분단된 사회 구조의 통합 과정에서의 체제적 편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자주적으로 독립을 爭取했다기보다는 수동적인 체제 정비 작업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강대국의 支援를 받은 정치 체제가 우선시되고 사회 구조는 지배 권력의 통제 아래 이끌려 왔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正當性에 대한 시비는 처음부터 있어 왔고 국민의 통치 권력에 대한 거부감이 지속되어 왔다. 국가 권력이 산업화를 추진하고 국력을 增強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 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지향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 감정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성 세대의 사대적 의존 심리와 젊은 세대의 反抗心理가 나온다. 강대국의 요구에 예속되어서 개인적 이득만을 취하려는 利己主義的인 計算心理가 기성 세대에서 보이고 대외의존적 의존성을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적이고 비판주의적인 반항 심리가 젊은 세대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상반된 심리가 충돌함으로써 주어진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통로가 그만큼 제

한되고 있다. 각기 자기 합리화를 위한 논리와 주장을 고집하고 개방적인 수용을 위한 아량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권력층의 비민주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현실의 포리가 다르다. 형식은 민주주의이나 內實은 전통적인 권위주의로 채색되고 있다.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정치적 권리의 향유를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고 있다. 選擧가 끝나면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政策 決定은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관료는 전체적 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참여 의욕이 없고 政治利用型, 政治無關心型, 政治不信型으로 나누어져 버린다. 우리나라는 현실에 동조하는 순종적 성격이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권위주의적 성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기성 세대에게는 권위주의의 도피 방식이 만연하고 있다. 이것이 維新體制를 가능하게 했고 권력의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정치 불신형으로 대립적으로 나가고 있다.

셋째로 보상 체계의 혼란이 있다. 자본 축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경제 성장의 바탕이 온갖 부정한 방법을 容認하고 말았다. 密輸·脫稅·投機·特惠 등 온갖 부조리가 타성화되어 不正腐敗가 固質化되고 있다. 정적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아주 적다. 上昇은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교묘히 이용한 不正腐敗의 결과라고 낙인찍히고 있다. 따라서 상층에 대한 하층의 불신 감정은 아주 깊은 것이다.

우리의 기성 세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 투기 선호자, 부정 축재자가 많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회적 이탈자로 간주되지 않고 도리어 성공한 자로 은근한 부러움을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가치 전도의 비뚤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여기서 젊은 세대의 현실 혐오감과 不滿 의식이 길러지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심리가 굳어진다.

네째로 目標 체계의 무질서를 들 수가 있다. 근대화와 경제 발전이 구가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근대화이고 사회 발전이나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그저 잘 살아보자는 바램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재산의 축적을 의미한다. 무엇을 위한 축적이나를 따지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민족주의도 복지 사회도 개인의 財貨의 蓄積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 우리 사회에는 가치지향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적다.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개척자적인 精神이 적다. 이것은 전통적인 삼강오륜의 규범 생활에 익숙해 왔고 현대도 가족 생활 속에서는 안전한 성격의 아이를 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가치지향형을 忌避하고 있다. 職場에서도 그리고 사회 생활 전반이 지나친 가치지향형을 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무엇이 옳은가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옳은 것에 대한 회구를 갈망하고 있다. 혁신주의는 이러한 회구에 대한 補償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냉전 체제와 국토 분단으로 인한 기성 세대의 체념 의식과 도피 심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을 자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積極의 姿勢보다는 전쟁 恐怖症과 피해망상증이 너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移民이나 해외 도피 등의 방법으로 피신처를 찾기도 한다. 또 그것을 逆利用하는 사람도 있다. 統治手段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진실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결단을 못내리고 있다. 한국인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불안감에는 분단에서 오는 압박감이 훨씬 큰 것이다. 젊은 세대는 현실 肯定的인 패배 의식을 거부한다. 자유 분방한 통일 논의는 경색된 기성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젊은 혈기의 몸부림이라고도 볼 수 있다. 反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정치적 현실을 비약하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는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4. 大學社會의 問題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속에 문제가 있고 세대간의 의식상의 단절이 있는 한은 학생운동은 끊

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모두 현실 부정적이고 혁신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과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생운동을 발생케 하는 선도 집단의 특성을 추출한 것이다. 이 특성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것을 加速化시키기도 한다.

대학은 사회적 변동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引導하면서도 반격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산업화와 더불어 발달하였으면서도 반산업적인 인본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官僚制化하면서도 反官僚主義的인 인간주의를 옹호하고 있으며, 대중화의 물결 속에서 選良 의식을 간직하고자 한다. 오늘의 대학은 산업화·관료제화·대중화의 산물이고 대학은 산업화하고 관료제화하고 대중화하고 있으면서도 대학 문화의 진수는 그 弊毒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은 발전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批判精神의 溫床이기도 하다.

대학이 갖는 비판 의식은 대학 문화 형성의 기초가 되고 있고, 이것이 젊은 세대의 情熱과 結付함으로써 上昇作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학교 생활에서 體感하는 긴장과 요구 불만은 학생운동을 촉발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 구조의 缺陷이 대학의 제도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고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 학원외적 간섭, 교내 활동의 자율성, 학교 행정 및 管理, 학생 복지, 講義 내용과 교수 방식 등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不滿은 累積的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학 시설은 어느 대학이나를 막론하고 水準 以下이고 缺陷 투성이다. 도서관에는 책이 모자라고 실험 기구가 부족하며 연구실이나 세미나실이 부족하고 클라스 단위는 아직도 대규모적이다. 학생들과 더불어 연구를 하려 해도 필요한 참고 서적을 구하지 못한다. 학생들로서는 교과서를 구하는 일조차 벽찬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교수들은 새로운 지식에 따라가기 위한 연구 서적 購入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대학다운 연구 시설과 諸般의 便宜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대학 사회의 복지 시설은 더욱 말이 아니다.

學生館과 寄宿舍가 만족스럽게 완비된 학교란 거의 없고 휴식 시간에도 학생들이 쉴 곳이 없다. 교수나 학생들이 모여서 談笑하고 토론하는 사교장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 대학이 하나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면 교수나 학생이 대학 構內에서 모든 욕구 충족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가운데 공동체 감정도 솟아날 수 있고 공동의 참여자로서의 協力 의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여가 선용과 분위기 개선을 위한 대학 복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配慮가 아쉬운 것이다.

그리고 대학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절실한 것 같다. 대학이 官僚組織의 본을 그대로 따고 있는 것처럼 우둔한 일은 없다. 기업체에서도 官僚組織이 오늘날 비판받고 있는 이상, 적어도 대학 사회만은 새로운 유기적이고도 適應的인 彈力 있는 조적을 갖추는 示範性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교육 그리고 대학 행정에까지 대학 사회 성원의 공동 참여와 集團決定의 길을 터놓는 작업이 서둘러져야 할 것이다.

교수와 학생들간의 紐帶는 더욱 친밀해져야 하리라 본다. 학생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교수들은 최대한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나친 형식주의나 惰性的인 適當主義는 배격되어야 한다. 교수들의 일거일동은 대학생의 注視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誠意는 誠意로 보답되지만 불성실은 곧 학생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인정해 주고 그들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 의식이 자칫하면 권위주의적 發想을 誘發하기 쉬운 것이 솔직한 실정이다. 學則·懲戒 제도, 그리고 학생 주변의 문제에 관한 것이나 혹은 학생들의 자주적 판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 운영의 폭을 넓혀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의사를 反映할 수 있는 媒介機構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일단 합의를 본 규칙에 대해서는 엄격한 적용을 相互 이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대학 사회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

회 발전과 더불어 점점 그 인구가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전문화가 촉진되고 技術水準의 향상과 더불어 대학 졸업생의 사회적 수요는 격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대중화는 不可避한 현상이고 따라서 대학생들은 그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團體交涉을 해 올는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學費 부담이 가중해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응분의 代價를 받아야겠다고 학과목이나 교수 내용 그리고 교육 내용에까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문제를 제기해 올는지 모른다. 학생운동이 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부르짖음에서 대학의 개혁으로 轉換되면 대학 사회는 보다 큰 陣痛을 겪을 것으로 각오해야 할 것이다.

5. 學生運動의 方向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이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民主化의 흐름을 주도한 社會勢力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고 새로운 변혁을 위한 참신한 동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바라는 요구가 모두 진실이고 충족되어야 할 당위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人間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는 社會란 아무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資本主義社會도 社會主義社會도 어느 것이나 그것이 理想社會가 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學生集團이 革命의 전위 세력이 되어 정치적 지배 집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學生運動이 정치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이론적으로 공격 받을 만한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결함 자체가 고쳐질 수 있으리라는 展望을 주지 않고 기에 학생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다 불행한 것은 학생운동의 주도층이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疎外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격 세력으로 매도당하며 逸脫集團으로 낙인찍히고 局外者로서 취급 받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學生集團의 힘이 生産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젊은이의 정열이 한낱 反抗의 아우성으로

끝나고 있다면 그것은 시행착오의 악순환만 가져 오고 歴史的 發展의 침체나 후퇴만을 가져올 뿐이다.

바람직한 學生運動의 方向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學生運動 發生의 근원적 요인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러나 힘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次善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學生運動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주는 길이다. 이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배 계층의 이익과 학생운동의 요구 사이에는 충돌과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다음의 길은 없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社會階層을 갖는 일이라고 본다. 오늘의 학생운동은 그 지지 기반을 노동자들에게 찾기도 하고 또한 농민층에게서 찾으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學生集團 자신은 노동 계층이나 농민 계층이 아니다. 이 한계를 무릅쓰고 노학 연맹이나 농학 연합을 서두르는 것은 구조적인 고립을 면하고자 하는 心理가 앞서고 있는 탓일 것이다.

학생운동의 선두 집단을 사회가 예고 있는 反抗兒로 보지 않고 위험 분자로까지 보고 있는 것은 사회 속에 뿌리가 없이 좌충우돌하고 걸잡을

수 없이 反抗論理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의 세력과 손잡을 수 있는 사회 세력은 中間階級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中間階級の 論理가 없고 물론 그 구조적 기반도 취약하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中間階級이 키워져야 한다. 그리고 中間階級을 대변하는 組織이 구축되어야 한다. 中間階級은 보수적인 上層階級을 견제할 수가 있고 또한 혁신적인 下層階級을 타협시킬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中間階級이 지배하는 社會라고 인식되면 학생 집단은 中間階級과 제휴하는 노선을 택하리라 본다. 그러나 上層階級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한은 下層階級과 손잡으려 하고 反抗의 예봉을 굽히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학생운동은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이 시도되어 야지 임기응변적인 처방이나 지엽적인 처방으로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사회 구조가 中間階級이 지배하는 社會가 되고, 中間階級の 意識이 사회를 주도하는 의식이 되고, 大學 社會가 中間階級을 위한 文化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학생운동은 그 존립의 명분도 약해지고 오히려 주인 의식을 갖고 중간 계급 지배를 위한 적극적인 찬성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